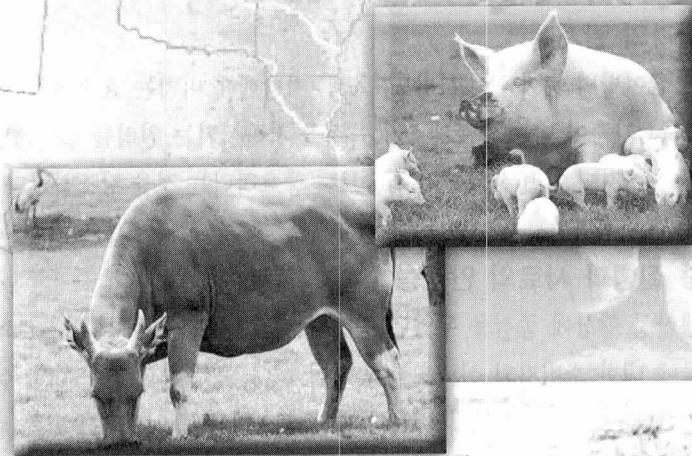


2008년도 미국의 돈육 및 가금육 시장 전망¹⁾



박기영 교수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1) 이 글은 KISTI에서 발행하는 『글로벌동향브리핑(GTB)』에 게재되는 자료인 "2007년 미국의 돈육 수출, 미국의 2008년 가금육 시장 전망, 미국의 2008년 돈육 시장 전망 (2007. 12. 9)"을 전문을 인용, 발췌하여 재작성하였음.



우리나라 양돈업계가 유럽과의 FTA 협상과 함께 최근 사료값 폭등으로 위기의식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다.²⁾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지난해 110Kg 돼지고기 한 마리의 생산가격은 18만원 선이었지만 지금은 21만 5천원으로 뛰어올랐다고 한다. 이는 돼지 생산비의 60%를 차지하는 사료비가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올해만 20% 가까이 오른 탓이다. 사료값은 올해 초 또다시 20%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값싼 미국쇠고기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게 되면 돼지고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양돈업은 연 생산액 3조 7천억원으로서 전체 농업생산의 10%로 쌀 다음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산업이다. 만약 유럽 연합과의 FTA협상에서 냉동삼겹살의 무관세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양돈업계의 타격은 매우 심각해질 전망이다. 현재 농림부에서도 11월말 TF팀을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사료값 인하 등 양돈업계 요구 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이는 것을 시점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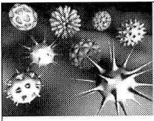
다음은 축산농가에게 정보 제공차원에서 글로벌동향브리핑(KISTI, 2007.12.9)에 게재된 내용을 발췌하여 미국의 2008년도 돈육 및 가금육 시장전망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양돈업자들은 내년인 2008년도에 미국에서 1억1천만두의 돼지가 시장에 출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올해 출하량보다는 2%가 증가한 수치며 2006년도의 출하량보다는 5%, 1998년도 출하량보다는 10%정도가 증가한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한다. 생산업자들은 미국에서 그 많은 돼지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작년보다 전체 축산농가는 더욱 많아졌고, 복당 산자수가 증가하였으며, 썬코바이러스 백신의 유효성과 효율성이 높아진 결과, 생존율과 생산성이 훨씬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양돈 산업은 7년째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8년째인 내년도에도 높은 기록으로 크게 성장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출하 돼지에 대한 수용 능력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옥수수와 사료 가격 그리고 수출 상황이 출하 돼지의 수용 능력보다 시장 요인을 좌우하는 훨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수 십년동안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양돈 산업에서 2004년 이래로 수출은 생산자들에게 효자 노릇을 하는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아이오와 주의 양돈 생산자들은 지난 3,4년동안 미국의 돈육 수출은 거의 75% 증가하여 2006년에는 도체중 기준으로 약 30억 파운드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미국의 돈육 생산 중 수출은 14.2%를 차지했는데, 2003년의 8.6%와 비교해

2)권민철, 수렁에 빠진 국산 돼지고기, 노컷뉴스, 2007.12.16,



보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미국의 돈육 수출은 최근 15년동안 연속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현재 미국 농무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측면에서 내년 시장을 예측,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USDA의 예측에 의하면, 내년 돈육 생산은 3%가 증가하여 2,233만 파운드에 달할 것이며, 내년 돈육의 가격은 평균 \$62/100lb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돈육 생산은 3% 증가하는데 반해, 육류의 총량과 가금육 생산은 2%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1인당 공급량으로 볼 때, 소고기 공급은 올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올해 육류의 총량과 가금류 그리고 해산물 공급은 실제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돈육 생산은 무난하게 소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미국의 돈육수출도 전반적으로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보고이다.

이러한 시장예측에 대비하여 미국의 양돈업자들이 축군의 규모를 확인 점검하면서 최근 경종을 울린 돼지 통계량에 반응하여 축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5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볼 때, 최근 한두달 동안 미경산돈의 도축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생산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축군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2008년 가금육 시장 전망을 보면 미국의 닭과 칠면조 생산자들에게 내년의 상황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칠면조

생산이 굉장히 가속화되겠지만, 두 부문 모두 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늘리고,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던 사료비용을 완화시키면서, 생산 규제, 내수 및 수출 호황 등으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격과 수익이 높아 내년 닭 산업은 올해의 기록적인 수익을 달성하고, 2년 연속의 경이적인 수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칠면조 산업은 4년 연속 최고 수익을 달성하였으며 2008년에도 두 산업은 분명히 높은 수익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올해 닭 산업은 생산이 줄었는데, 이에 따라 닭고기의 가격은 작년보다 상승하였고, 가슴육의 경우 작년 보다 70%정도 상승하였다고 한다(5월초 기준).

그러나,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올해 닭고기 생산은 2006년에 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칠면조 산업의 경우 2002년과 2003년 원정 생산으로 큰 손실을 본 이후에 2004년에 생산을 줄였으며 2005-07년에 걸쳐 다시 조금씩 성장하였다. 이 기간동안 10년만에 처음으로 칠면조의 수요가 늘어났고, 작년에는 가슴육 등이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하였다. 미국 농무부는 내년에 1% 정도의 칠면조 고기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 예상에 의하면 내년에는 칠면조 판매가 5% 상승할 것이나, 가격과 수익은 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수익은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닭 재고는 생산 축소로 재고가 감소하여, 사실상 작년 9월말보다 12% 감소하였고, 칠면조 재고는 작년보다 많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현재 닭 수요는 많으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름에는 소고기와 칠면조가 우세한데, 소고기는 여름에 구이용으로, 칠면조는 Subway와 같은 레스토랑이나 샌드위치점에서 그 수요가 높다고 한다. 닭 수요는 여름 이후에 증가하는데, 이는 조리된 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 내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닭 시장은 계절성(계절적 혹은 주기적인 수요패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 동향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칠면조에 대한 수요 역시 높으며, 칠면조 가슴살 고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로는 칠면조 생산회사가 칠면조를 이용한 레스토랑 메뉴의 개발 등을 통하여 훌륭한 마케팅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닭과 칠면조 회사는 홍콩/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계속해서 수출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한다. 캐나다는 미국의 닭과 칠면조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수입업자들이 높은 달러때문에 보다 많은 미국 가금육을, 특히 조리된 상품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부족한 단백질 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육제품에 혼합할 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전 세계 시장을 탐색하고 있다.

최근 닭 소비를 크게 위축시켰던 조류 독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좋아지고 국가 경제와 개인 경제가 호전되면서, 가금육 분야의 국제 시장은 전망이 좋은 상태이다. 미국과 치열한 닭 수출

경쟁국인 브라질의 사료 가격이 높아지면서 브라질 내에서의 닭 생산가격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유럽이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옥수수의 구매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닭이 닭다리 부분에서 세계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된 닭다리 가격이 현재 낮은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향후 미국산 닭다리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내년에 닭과 칠면조의 수출이 각각 약 3%와 10%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는 미국 생산량의 15%와 1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국 농무부는 내년 가격에 대해, 평균 닭 가격은 파운드당 75센트 정도, 칠면조 암컷의 가격은 파운드당 78센트로 보고 있으며 모두 올해의 76.6센트 및 82.4센트에 비해서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칠면조 가슴육은 2006년에 2.16불, 올해는 2.30불이었는데, 내년의 경우 파운드당 2.10불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등 세계적인 주요 육류생산업체 및 시장의 전망을 토대로 국내 한우, 돈류 및 가금류 등의 육류 가격전망과 이에 적합한 생산규모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축산농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축산농가의 수익극대화에 중요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와 생산자협회 및 관련 학자들의 다양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㉟